

# 소수집단문학으로서의 재일한국인문학 연구

-현월의 『이물(異物)』을 중심으로\*-

황 봉 모\*\*

kubojun@hanmail.net

## 〈 目 次 〉

- |                                      |                     |
|--------------------------------------|---------------------|
| 1. 서론                                | 4. 올드커머의 ‘이물’ - 뉴커머 |
| 2. 일본인의 ‘이물’ - 재일한국인                 | 5. 결론               |
| 3. 재일한국인 1세에 있어서의 ‘이물’<br>- 재일한국인 2세 |                     |

Key Words : 玄月(Hyunwol), 在日韓国人文学(Korean residents' s literature in Japan), 異物(an alien substance)

## 1. 서론

현월(玄月) (1963-)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작가이다. 그는 2000년 『그들의 집(蔭の棲みか)』이 아쿠타가와 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일본문단에 데뷔하였다. 그 후 현월은 일련의 작품을 통하여 재일한국인 사회라는 소수집단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파헤치며, 인간의 근원적 악과 폭력을 주시해왔다. 현월은 작가 자신의 정체성의 발로이기도 한 재일한국인의 군상(群像)을 작품에 투영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존재양상을 정확히 포착하는데 성공했기에, 그의 작품은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551-A00069)

\*\* 한국외대 일본어과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작품 중에서 『이물(異物)』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의 현재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재일한국인이 겪는 일본 사회의 차별이 주 내용이었던 대부분의 재일한국인문학 작품들과는 달리, 현월의 『이물』에서는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1세와 2세, 그리고 올드 커머(Old comer)와 뉴커머(New Comer)라는 새로운 갈등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물감(異物感)은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사이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 각각의 그룹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물』내부의 인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일본인의 ‘이물’ - 재일한국인

『이물』은 『군상(群像)』(2005년 2월호)에 발표된 후, 2005년 4월 고단사(講談社)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현월의 『이물』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내의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내, 그리고 뉴커머 등 외부의 여러 형태의 이물감에 대해서 작가 특유의 인간내면의 폭력성을 남성주의적 성(性)이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내에서 시점이 여러 번 바뀌고 시(時)계열이 매우 복잡하게 엉켜있으며,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황사(黃砂)처럼 작품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혼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혼탁함 속에서 나오는 이물감은 A: B의 단순한 양자구도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다자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 작품에 혼탁함을 더해준다.

『이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구조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전형적인 갈등구조인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1세와 2세’,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구조인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갈등이다.

우선, 재일한국인문학에서의 전형적인 갈등구조인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의 갈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재일한국인문학에서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이라는 갈등은 전형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물』에서도 역시 그러한 면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이물』의 무대는 재일한국인이 많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옛날부터, 적어도 80년 전에는 마을 주민 반수 가까이가 재일한국인이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케이마 마사토(池山真人)는 재일한국인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에 더없이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상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기도 하다. 친한 친구와 호의를 가진 사람을 위해 애쓰는 것을 마다않지만, 반대로 한 번 적이라고 판단하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성격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사토(佐藤)를 비롯한 일본인 그룹과 다른 자리였지만 우연히 같은 술집에서 술을 먹게 된다. 그런데 사토는 이케이마를 배려하는 아쓰시(敦史)에게 그의 본심을 드러낸다.

“뭐야, 재일한국인이군. 너 한국인 따위에게 왜 배려하나? 잘난 도련님인 주제에.”  
 “야, 충고해두지만, 이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어깨에 힘 좀 주지 마. 나한테도 재일한국인 친구가 있고 차별 같은 거 안 해. 단지 저 새끼 맘에 안 들어. 건방지게 나를 부르고, 발이 넓다고 하지만, 일본이 먹여 살려 주는 거지. 처지를 알아야지.”<sup>1)</sup>

사토는 자신에게도 재일한국인 친구가 있고 차별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재일한국인은 일본이 먹여 살려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의 ‘처지를 알아야지’라는 말에서 그가 재일한국인과 일본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재일한국인은 자신과 같은 일본인이 아니다. 그는 겉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들과 재일한국인이 다르다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이물』에서 일본인의 태도 구분이 어려운 것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을의 특성에 있다. 『이물』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예전부터 재일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노골적인 차별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1) 현월(2005) 『異物』강담사, p.124 (이후 본문에서의 인용은 쪽수만을 표시한다.)

사토와 같이 차별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케야마와 재일한국인을 ‘그놈들(あいつら)’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인인 ‘우리들(おれら)’과 구별한다. 그는 재일한국인이 많은 마을에서 자라서 재일한국인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위화감(違和感)을 느끼며 일본인과 구별하여 재일한국인을 이(異)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일본인은 재일한국인을 드러내놓고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그놈들’인 재일한국인은 친구이면서도 ‘우리들’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 존재들이라고 인식된다. 재일한국인이 많이 사는 마을의 특수한 형편상, 표면적으로는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들’인 일본인과 ‘그놈들’인 재일한국인을 마음속으로 다른 존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일한국인문학에서 전형성이란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에 있었는데, 『이물』에서는 특이한 경우가 나타난다. 그것은 재일한국인문학에서 대부분의 주인공들의 모습과는 달리,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면서도 일본인보다 더욱 일본인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인공 이케야마 마사토의 존재이다.

4학년 때 하리모토 이사오(張本勳)의 일본 햄 파이티스로부터 거인(巨人)으로의 이적이 결정된 것을 감독으로부터 들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로서는 드물게, 모두의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쁜 거냐?”라고 묻자, 이케야마는 대답했다. “너희들도 알잖아, 그가 우리와 같은 걸. 이런 기쁜 일이 또 있을까?”<sup>2)</sup>

이케야마 마사토는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같은 일본인으로 대하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다. ‘재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뒷담화나 비하를 용서 못했지.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세 명은 반죽음이었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일본인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러한 재일한국인의 정체성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일본

2) p.133-134

인에 대한 적대감은 재일한국인문학에서의 전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케야마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여기에서의 ‘적대적인 존재’는 이케야마가 ‘우리들’이라고 부르는 재일한국인(정확히는 올드커머)을 ‘그놈들’로 대하는 일본인이거나, 혹은 일본인에게 자신들을 ‘그놈들’로 보이도록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존재인 뉴커머이다. 그런데 이케야마가 자신을 ‘그놈들’로 부르는 일본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쇼와(昭和) 천황이 죽었을 때도 울고 있었지. 나는 그것을 직접 본건 아니지만 본인이 고백했지. <중략>나는 오사카의 평균적인 일본인이지만, 내가 아는 한, 쇼와 천황이 죽어서 눈물을 흘린 일본인은, 할아버지 한 명이나 두 명이었어. <중략> 왜 이케야마씨는 자신이 운 것을 말한 걸까요? 운다, 는 것은 약점이잖아요 “그렇지, 개는 어떤 경우라도 남한테 약점을 보여주지 않아.” “자신이 운 것을 스스로 밝힌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지.”<sup>3)</sup>

다른 재일한국인문학에서의 ‘재일(在日)’의 모습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바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이다운’ 이케야마의 모습일 것이다. 그는 재일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지만, 쇼와 천황이 죽었을 때 울었다고 말한다. 일본인도 울지 않는데 재일한국인인 그가 운 것이다. 또한 그는 광적인 황실 마니아로 아이코짱이 태어났을 때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케야마 마사토는 감정이나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의 이러한 모습만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케야마가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와는 별도로, 평균적인 일본인보다 더 일본이다운 모습을 일부러 더 보여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일본인에게 ‘그놈들’로서 구분되는 것을 거부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케야마는 확실한 ‘우리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에 의해 그러한 ‘우리들’, 즉, 타인에게의 ‘그놈들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을 차별하는

3) p.131-132

일본인을 싫어하고, 또 자신들을 ‘그놈들’로 만들 수 있는 뉴커머들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뉴커머로 인해 자신마저, 또한 ‘그놈들’로서 일본인에게 함께 취급되는 것이 싫은 것이다.

『이물』의 일본인은 특수한 배경인 마을의 영향으로, 재일한국인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재일한국인은 친구이자 이웃이지만, 완전히 같은 존재는 아닌 ‘그놈들’이다. 또 재일한국인은 이러한 그들의 인식을 무시하기도 한다. 현월은 재일한국인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는 배경을 통해 보통의 일본사회에서보다 좀 더 미묘한 이들의 갈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일본인은 재일한국인에게 이물감을 느낀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이케야마에게도 이물감을 느낀다. 일본인에게 재일한국인은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인 것이다.

### 3. 재일한국인 1세에게 있어서의 ‘이물’ - 재일한국인 2세

대부분의 재일한국인 1세가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 즈음 우리나라에서 가난해서 못 배우고, 처지가 어려워져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재일한국인 1세는 주로 막노동이나 보따리 장사와 같은 일을 하며, 강인한 생활력으로 일본사회에서 살아남았다. 따라서 이런 재일한국인 1세는 자식들이 자신들의 인생순환을 겪게 하려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재일한국인 1세들의 이러한 역할로 오늘날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사회에서 현재의 위치를 갖게 되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지위는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재일한국인 1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식들은 일본이라는 사회에 귀속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 사회 내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인식들이 2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하였고, 그러한 해결책으로써 모국을 버리고 생활의 터전이 있는 일본으로의 귀화가 다반사로 나타나는 사회적 양상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물』의 내용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작품 내에서는 재일한국인 1세들이 2세들을

자신과 다른 존재들로 인식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나고 자란 아들은 다르다. 마사토는 언젠가는 일본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케야마 노보루(昇)는 아마시타(山下)에게 말한 적이 있다. <중략> 아마시타는 그때, 이케야마 노보루 자신이 장래에 귀화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신과 아내가 죽은 후라는 것을 깨달았다.<sup>4)</sup>

재일한국인 1세인 이케야마 노보루는 자신의 아들인 이케야마 마사토가 장래에 일본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아마시타에게 말한다. 재일 1세대는 귀화라는 것을 자신의 조국인 한국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인 마사토가 일본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아들은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귀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재일 1세인 자신과 재일 2세인 아들은 다른 존재라고 인정한다. 여기에 자신과 아들 사이에 이물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재일한국인 2세인 이케야마 마사토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일본에서 일궈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부류, 즉 ‘이물’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일한국인 1세와 2세간의 거리감은 아래에 제시하는 본문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나타난다.

아마시타의 이야기로부터 이케야마의 우익적인 경향은 아버지의 강한 영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케야마 노보루는 배타적이었으나 폭력적이지는 않았다. 일본인처럼 살았지만 죽고서는 한국식으로 화장되었다. 한편, 일본에서 나고 자란 이케야마 마사토는 귀화하지 않고 전형적인 재일한국인 1세인 어머니와 마을에서 상점을 하고 있다. <중략> 반대로 보면, 아버지의 억압에 대한 반발을 밖으로 폭발시켰다는 것을 알았다.<sup>5)</sup>

이 부분에서 아버지인 이케야마 노보루의 우익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케야마 마사토가 아버지에 비해 폭력적이고 매우 배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작품 내에서도 이케야마 마사토는 갠단 친구 기무라와 함께

4) p.184

5) p.204

하며 폭력적이고,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배타심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케야마 마사토는 뉴커머인 순신이나 제주도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며, 그들을 달갑지 않은 존재로 인식한다. 아버지의 억압에 대한 반발을 밖으로 폭발시켰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재일한국인 1세인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일한국인 1세와의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일한국인 1세인 데루가(輝賀)와 오오가(大賀)의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하여 느끼는 이질감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에 심한 이질감을 느낀다.

그리고 더 한가지의 걱정은 아이들이 심히 차가운 것이었다. 가깝게 사는 넷째 딸아이는 시댁만 신경 쓰고 위의 세 명은 대학에 들어가서 수 십 년 동안 정월에도 가끔씩 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각자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기에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부부로 온천이라도 다녀오라고 패키지 여행쿠폰 하나 준 전례가 없었다. 손자가 몇 명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위의 세 명은 부모의 허락 없이 일본으로 귀화했다. 넷째는 일본인과 결혼할 때 국적을 바꾸었고, 데루가는 야구계의 일을 쉽게 하고자, 일단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고 귀화했다. 이제는 제주도 호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오오가 뿐이다. 자신도 아이들도 평생 일본에서 살아간다고 장남이 태어난 때에 정했으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몸으로는 괴로운 것이었다.<sup>6)</sup>

이 부분은 재일한국인 1세인 데루가와 오오가의 어머니가 느끼는 자식들에 대한 이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은 일본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본으로의 귀화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해버리는 자식들에 대한 거리감이 가슴 깊은 상처가 되어 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몸으로는 괴로운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의 귀화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재일 1세대에게 있어서 자신들 자식들의 귀화가 얼마나 이질감으로 다가오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90년대 이후로 매년 1만 명에 이르는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고

6) p.103-104

있는 현실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된다’는 용어의 사용으로 재일한국인 2세의 귀화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시절 험한 일을 겪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1세대들에게 있어 일본은 조국을 빼앗은 나라로 인식되고 언젠가는 그 아픔을 돌려주어야 할 나라로 인식되지만, 그들의 자식들인 2세들은 다르다. 재일한국인 2세들은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들에게서 느껴온 이물감을 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1세들은 이러한 2세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심각한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세대 간의 벽을 형성하고, 그 벽은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현재 생활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벽을 형성하게 되어,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민족으로 인식하는 양상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sup>7)</sup>

한편 현월은 『그늘의 집(蔭の棲みか)』에서도 재일한국인 1세와 2세와의 현격한 간격을 이야기한다.

재일한국인 1세와 2세가 무엇보다 다른 점은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 2세인 다카모토(高本)는 재일 1세인 서방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7) 『이물』이라는 작품에서 나타난 재일한국인 1세와 2세간의 갈등, 즉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50년대 말부터 진행된 브라질로의 이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브라질 이민 첫 세대들은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브라질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세대들은 브라질 사람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이 생활하면서 동화되어 갔다. 그런데 여기서 2세대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1세대의 길을 따라 모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며 브라질 속에 터전을 마련하는 부류와 브라질 사회에 대한 적응을 미룬 채, 한국에서 새로이 넘어오는 뉴커머인 1.5세대(브라질 이민 1.5세대는 주로 한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주류가 되며, 한국의 비행청소년들이 대부분 브라질의 1.5세대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다.)의 나쁜 영향을 받아 브라질 내에서 폭력단의 길로 빠지는 부류이다. 이와 같은 1.5세와 가까운 2세대들은 이미 브라질 사회 내에서도 1세대와의 두꺼운 벽을 형성하고 있다. (전경수(1989) 『브라질 한국이민의 문화화 과정과 자녀교육』 『라틴아메리카연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p.128-p.153) 따라서 『이물』에서 보여준 재일한국인 1세와 2세간의 갈등은 한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이민국 전체에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물』의 현월 또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나라하고 역사문제를 마무리 짓는 건 우리 세대 이후에는 불가능해요. 그걸 영감 세대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죽기 전에 마무리 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니 나는 너무 무력해요. 적당한 돈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마음도 몸도 풀릴 대로 풀려 버렸어요. 이 나라 하는 꼴에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토로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빠질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리고 나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그런 식으로 되풀이 하는 거예요.<sup>8)</sup>

다카모토는 재일한국인 2세대의 역사인식을 대표한다. 그는 자신들의 세대는 이미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그것을 해결할 어떠한 의지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1세대인 서방에게 그들 세대에서 역사문제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2세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일본문화 속에서 자라온 세대이다. 사실상 그들이 일본인과 다를 것은 없다. 그들이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관심이 멀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재일한국인 2세대들에게는 민족적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된 일본과의 관계보다 자신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다카모토는 서방에게 일본정부가 전후 보상금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단지 일시금으로 얼마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고작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이미 어떠한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자신들은 이미 일본정부의 전후 보상금문제를 주장할 의지가 없으며 위로금이라도 타면 그것으로 역사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카모토의 생각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부분의 재일한국인 2세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재일한국인 1세대가 그들을 ‘이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8) 현월(2000) 『그늘의 집(陰の棲みか)』 문예춘추사, p.89

9) 황봉모(2004) 『현월(玄月)』 『그늘의 집(陰の棲みか)』 ‘서방’이라는 인물- 『일본연구』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pp.391-pp.392

#### 4. 올드커머의 ‘이물’ - 뉴커머

이 작품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던 재일한국인 1세인 이케야마 노보루이다. 일본사회에 편입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칙어를 외우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전쟁이 끝나고도 다른 일본인들조차 무덤덤한 그때, 그는 황국소년(皇國少年)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한다. 이것은 그만의 특수한 경우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의 룰에 복종하는 형태를 넘어서는 인간 본연의 그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된다. 군중심리학<sup>10)</sup>에 의하면 인간은 집단에의 소속감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의 재일한국인 1세들에게는 재일사회와 일본사회라는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하며, 비교적 어린 시절에 일본에 정착하게 된 이케야마 노보루는 자신의 정체성(正體性) 구축의 일환으로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충성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재일한국인 1세들은 그 시점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즉, 시대의 흐름에서 이탈되는 정체(停滯)를 보여주는 면이 있다.

그에 비해, 재일한국인 2세들에게 있어서의 한국은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한국인 2세들은 재일한국인 1세에 비해서 ‘선택’에 대해서 자유롭다. 특히, 어려서부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받는 북조선 계에 비해서, 한국계 2세의 경우는 처음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므로 재일한국인 1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는 다른 ‘이물’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도 귀화, 귀국 등을 선택하거나 또는 재일한국인 1세에게 물려받은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는 등 여러 양상의 재일한국인 2세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재일한국인 1세와 재일한국인 2세간의 이물감의 본질은 ‘선택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으로 건너와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재일한국인 1세와 일본사회에서 ‘이물’로 취급 받는 상태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재일한국인 2세간의 이질감은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물감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10) 군중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나 정신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 사회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재일한국인 1세에게 있어서의 재일한국인 2세의 아이덴티티 규명에서 그쳤다면 재일한국인 2세는 선택의 자율을 보장받는 특권층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재일한국인은 하층은 존재보다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사회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재일한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그들은 ‘부자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특권층’으로 불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본인으로서는만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에 비해 이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대적 선택의 부재(不在)에 대한 피해의식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실상은 재일한국인이 겪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주는 스트레스와 일본사회로부터의 편견, 차별이 더 극심하다고 볼 수 있어, 재일한국인 2세 이후의 세대들은 그리 순탄치 않은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를 풀어내기 위해 작가는 뉴커머를 작품 내에 등장시킴으로써 재일한국인 2세의 아이덴티티 규명을 완성하려고 한다.

일본에는 2009년 약 220만 명의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sup>11)</sup> 그중 26.5%인 약 58만 명이 한국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한국인이다. 재일중국인은 68만 명이다. 재일한국인은 일본에 온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있던 시기(1910-1945) 전후에 일본에 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로, 올드커머로 불린다. 또 하나의 그룹은 주로 1980년대 이후, 일, 결혼, 유학 등으로 일본에 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뉴커머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올드커머의 대부분이 장래에도 일본에 거주할 의향을 가진데 반해서, 뉴커머는 일본에 영주할 사람들과 몇 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sup>12)</sup>

『이물』에서는 재일한국인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뉴커머와 올드커머의 갈등 양상을 그리고 있다.<sup>13)</sup> 지금까지 올드커머인 재일한국인의 삶을 다룬 작품들은 많았지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일본을 선택한 뉴커머들과의 모습과

11) 일본 법무성(2010년도판) 『출입국관리』

12) 이키코시 나오키(生越直樹)(2011) 『재일코리안 학생의 언어사용-민족학교에서의 앙케트조사에서(在日コリアン生徒の言語使用-民族学校でのアンケート調査から)』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국제심포지움, p.71

13) 재일 한국인 또는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대체로 일본법 상 올드커머는 특별 영주자로, 뉴커머는 일반 영주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갈등을 그린 작품은 많지 않다. 현월은 작품에서 이러한 새로운 갈등 구조를 등장시키며, 뉴커머와 기존의 한국인사회와의 관계와 갈등을 조명한다. 그는 이러한 두 그룹 간의 갈등관계를 통하여 두 그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와 서로 공생해야만 하는 당위성 사이에서 고민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이 작품에서 이물감은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사이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 세대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올드커머와 뉴커머 사이에도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물』에서 올드커머 사람들이 뉴커머와의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올드커머와 뉴커머간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과 그 이유를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뉴커머는 ‘최근 십 수 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동북부의 조선족 자치주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정착했다. 그들은 불행인 일본에서도 특히 심각한 오사카(大阪)에서 강인하게 적은 돈을 모아 일본인이나 재일한국인과 결혼하여 당당하게 가정을 가진’ 사람들로써 묘사된다. 작품에서 뉴커머는 ‘새로운 1세’로 명명된다.

새로운 1세들은 예전 1세의 아이나 손자에 해당하는 2세나 3세와 거의 동세대다. <중략> 사실 동세대라고 해도 점점이 거의 없다. 그들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또 새로운 1세들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적지 않게 있었다. 지연, 혈연에 기대어 마을에 와, 열심히 일하거나 혹은 적당히 놀고 비자가 끊긴 뒤에도 엉거주춤 놀러 앉았다.<sup>14)</sup>

올드 커머의 2세나 3세와 뉴커머는 거의 동세대(同世代)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둘 간의 갈등은 문화, 언어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재일한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는 뉴커머와 다르다. 뉴커머가 청소년기 이상을 한국에서 자라고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인데 반해, 기존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달라 서로 대화가 원만할 수 없는 것이다.

뉴커머의 등장으로 마을의 양상은 급변한다. 먼저의 1세들은 교육다운 교

14) p.153

육을 받은 이들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20대, 30대가 제대로 된 한국어를 마을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이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지방(주로 제주도)사투리가 섞여 있는 마을사람들은 유창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는 뉴커머들에게 같은 한국어이지만 언어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재일한국인의 역사를 설명한다. 즉 재일한국인은 백 년 정도 전 한일 합병 이전부터 시작되어 80년 이후 버블 경기로 뜨거운 일본을 목표로 유입된 새로운 집단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긴 시간 다른 방식으로 생성된 재일한국인들이 각자 다른 사상과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재일한국인 1세대는 일본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며 그들만의 사회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올드커머에 있어서 뉴커머의 도래는 자신들이 힘들게 만들어온 재일한국인사회가 위협 받는다는 점에서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뉴커머들의 생활 방식, 일본사회에 정착하는 방식은 올드커머에게 그들이 ‘이물’로서 취급 받게 하는 큰 이유가 된다. 올드커머와 다른 정착 방식과 오버스테이를 지속해온 순신과 같은 불법체류자, 그리고 영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남편과 이혼을 하지 못하는 순신의 누나와 같이 올드커머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생각의 차이는 올드커머와 여러 면에서 비교되면서 갈등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현월은 두 그룹 간의 문화적, 언어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이해와 대화가 생겨날 수 없었다는 것과, 뉴커머들의 정착에서 보이는 생각의 차이와 생활 방식의 문제가 이들 간의 갈등의 배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갈등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재일한국인인 데루가와 그의 어머니가 저녁에 법회를 끝내고 절의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운 1세대의 40대 여성이 나온다. 하지만 데루가의 어머니는 그 여성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그녀들을 싫어한다. 이러한 데루가의 어머니가 절에서 보인 행동에서 올드커머가 뉴커머에게 보이는 경계와 반목의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 구세대

의 전형으로 재일한국인 1세대인 데루가의 어머니에게 있어 뉴커머의 존재는 자신들이 힘들게 마련해온 일본에서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알미운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을의 1세 여자들은 어릴 적에 건너온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향인과의 연결을 중시하고 종교에 대한 믿음이 컸다. 그리고 타지에서 남편 자식들을 위해 1세대 여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왔다. 1세대 올드커머들은 뉴커머들이 이런 자신들의 고충과 눈물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생활 방식의 차이와 종교적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한 이질감을 품는 것이다.

한편 뉴커머를 ‘이물’로 느끼며 분노의 격렬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재일한국인 2세대인 이케야마 마사토이다. 이케야마가 가지는 반목(反目), 분노(怒り), 증오(憎惡)는 작품 곳곳에 등장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로가와(黒川)는 이러한 이케야마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케야마는 옛날부터, 저 녀석들이 싫다. 자신도 부모가 이민이지만, 새롭게 온 이들을 구별하고 있다. 시대나 경위가 다른 것을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이케야마는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강렬한 것이다. 그런 데 그 ‘재일한국인’ 중에는 그놈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 재일한국인 중에는 이케야마 같은 녀석이 적지 않게 있는 듯하네.<sup>15)</sup>

이케야마는 뉴커머들을 자신과 구별하고 ‘그놈들’로 부른다. 이것은 일본인이 재일한국인을 ‘그놈들’로 부르며, 자신들과 구별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 재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며 경계의 선을 긋고, 그들에 대한 증오를 과격한 행동으로 뽐어내고 있다. 그 이유로써 그는 ‘지금 저 자식들은 철도 없고 해가 없어 보이지만, 머지않아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케야마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너희들, 눈에 거슬러’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뒤집거나 가게를 부수어 버리기도 한다.

15) p.146

재일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자존심과 긍지를 지닌 이케야마에게 순신으로 대표되는 불법체류를 지속하며 매춘 알선과 같은 더러운 짓을 하는 뉴커머들, 술에 취해 난리를 피우던 어린 무리의 뉴커머들, 거만한 태도로 자신은 돌아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뻔뻔한 짓을 저지르는 불고기 집의 조선족 남자와 같은 뉴커머들은 없어져야 할 재일한국인 사회의 해로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다. 올드커머들에 비해 자유롭고 ‘구김살이 없는 세대’로 행동 양태도 ‘당당’한 뉴커머들이, 정의로운 성격의 이케야마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달갑지 않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는 이들을 재일한국인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이케야마가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케야마의 평상시의 온후한 모습에 반해 그들을 대하는 적대적 감정의 극명한 표출은 일종의 시위 행위라는 인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한다. 그의 내부에 동거(同居)하는 강한 분노와 티무니없는 비애(悲哀)는 정의(正義)라는 이름으로 내세워지고 있지만, 더 세심히 살펴보면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뉴커머에게 울분을 터트리는 장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힘겹게 유지해온 자신의 터전을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해를 당할 것이라는 분노와 두려움에서 온 것일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라는 속담처럼 이케야마는 굴러 들어온 울퉁불퉁한 뉴커머라는 돌이 자신이 힘겹게 자리 잡은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케야마는 무엇을 저지르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위협적인 뉴커머들을 '이물'로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치열한 자기 정체에 대한 고민과 혼란 속에서 일본사회 속에서 나름의 위치를 확보한 올드커머들에게 있어서 뉴커머들은 황사와도 같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자신들이 애써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에 무임승차하고, 때로는 그것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애써 쌓아 올린 이미지가 그들에 의해 퇴색된다는 것이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뉴커머인 순신은 재일한국인 2세이자 올드커머인 이케야마 마사토에게 우려를 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적대감으로 발전하여 순신에게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일본인이 재일한국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부분적으로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작가는 재일한국인 2세를 일본인이

재일한국인을 바라보는 ‘갑’의 입장에 위치시킴으로써, 작품 속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발생한 비극의 단편이 아닌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확장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월의 『이물』은 뉴커머라는 새로운 개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른 재일한국인문학, 혹은 재일한국인을 소재로 하고 있는 문학작품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의식을 ‘이물감’으로 파헤쳐 놓으며, 작품 내내 느낄 수 있는 그 혼탁함은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깊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기본적으로 인간은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소속된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 갖는 정체성은 저마다 다르고, 그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작가는 『이물』에서 이(異)집단과의 경계와 갈등으로 희박해지는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강화하는 모습을 통해 이와 매우 닮아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현월은 일련의 작품에서 ‘재일한국인 사회’라는 소수집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류 보편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는 특징을 『이물』에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현월의 『이물』을 중심으로 일본인에게 있어서의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1세에게 있어서의 재일한국인 2세, 그리고 올드커머에게 있어서의 뉴커머라는 세 가지 분류로 작품 내에 나오는 이물감(異物感)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에서 사는 재일한국인은 일본인과의 관계, 그들 각각의 세대 간의 대립, 그리고 올드커머와 뉴커머들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월은 일본에서의 재일한국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현월은 재일한국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현월은 ‘새로운 1세’인 뉴커머들에게 대해 ‘그들 중에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선량하다.’라고 말한다. 뉴커머들은 문제를 일으켜서 올드커머와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일본에서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약자이다. 그리고 일본인의 ‘그놈들’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모두 일본사회에서 약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같은 소수집단이기 때문이다.

현월은 『이물』에서 그들이 사이 좋게 지내는 이유로써, 마을사람들은 자신들도 이주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용적이며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관심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인다. 요컨대 기존의 마을사람들과 ‘새로운 1세’들은 일하는 영역이 다른 것이다. 현월은 이러한 ‘새로운 1세’들에게서 재일한국인 사회의 희망을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1세’들에 의해, 마을에 신진대사(新陣代謝)가 행하여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월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기존의 마을사람들과 ‘새로운 1세’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사이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역(2008) 『경계선 넘기』 인간사랑  
 강상중, 이경덕. 임성모역(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고부웅 편저(2003)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레이초우, 장수현 김우영 번역(2005)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pp.20-pp.21  
 릴라간디, 이영옥역(2000)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박종철(2006)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전경수(1989) 『브라질 한국이민의 문화화 과정과 자녀교육』 『라틴아메리카연구』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 p. 128-p. 153  
 황봉모(2004) 『현월(玄月) 『그늘의 집(陰の棲みか)』- ‘서방’이라는 인물-』 『일본연구』 한국  
 국외대 일본연구소 pp. 391-pp. 392  
 玄月(2000) 『蔭の住みか』 文藝春秋  
 \_\_\_\_ (2000) 『悪い噂』 文藝春秋  
 \_\_\_\_ (2003) 『おしゃべりな犬』 文藝春秋  
 \_\_\_\_ (2005) 『異物』 講談社  
 \_\_\_\_ (2007) 『眷族』 講談社  
 일본 법무성(2010년도판) 『출입국관리』  
 이키코시 나오키(生越直樹)(2011) 『재일코리안 학생의 언어사용 - 민족학교에서의 양  
 케트조사에서(在日コリアン生徒の言語使用-民族学校でのアンケート調  
 査から)』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국제심포지움 p.71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7일  
 게재결정: 8월 01일

<Abstract>

**As minority literature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literature-based  
on A Foreign Body of Hyonyeol.**

This article considers the Korean Residents literature mainly [A Foreign Body] of Hyonyeol. Hyonyeol (1963-) is Korean writer, living in Japan and currently he is the most active writer in Japan. When The Shade House received the Akutagawa prize in 2000, he began working the literary world in earnest in Japan. After that he investigated absurdity which was minority group of the Korean residents society through some of the works and has gazed steadily at the fundamental evil Hyonyeol throws an image on a work as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grasps existence of a human successfully, so it can be said that his work gets universality. He is known as a writer that the universal aspects of humans rather tha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ns living in Japan, though he himself is one. This article considers mainly [A Foreign Body] of his works and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lmost all the Korean Residents Literature mainly treat Japanese society distinc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hereas Hyonyeol's A Foreign body treats new discord which are Japanese, generation Korean-Japanese, a first generation Korean-Japanese, a second generation Korean-Japanese and Old comer and New Comer. The writer said that the feeling of irritation exist between Japanese and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moreover each group has the feeling of irritat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get and receive like the discord in a person of [A Foreign Body]. As we demonstrated.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have a problem with Japanese, each a generation and discord of old comer and new comer.